



위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

[2026년 1분기]

2026. 4.

I 위성 관련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

정 책

1. [아리랑호] 수차례 지연 아리랑6호, 3분기 이후로 또 연기...동행위성 문제
2. [KASS] 내달 항공위성서비스 2호 위성 서비스 가동...항공·지연·결항↓
3. [우주항공청] 인텔리안 위성통신용 안테나 기술 등 韓 우주신기술 첫 지정
4. [우주항공청] 한·미 우주환경 협력 확대... '심우주 우주관측위성' 운영
5. [우주항공청] 우주청, 한국형 인공위성 환경시험규격 개발 착수
6. [진주시] 위성 레이더(InSAR) 기술 이용, 지반 침하 막는다.
7. [국방부] 국방부, 국정원·우주항공청 등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사업 논의
8. [KAI] KAI, 우주 의학 전문기업과 위성 인공지능 실증 맞손
9. [GEMS] 위성으로 관측 어려운 초미세먼지 농도...AI로 빠르게 알린다

산 업

1. [현대글로비스] 현대글로비스, '스페이스X 통신위성' 스타링크로 선박 연결
2. [LIG넥스원] LIG넥스원, 민간주관 위성개발사업 착수
3. [대한항공] 대한항공 위성 탑재용 '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' 개발 성공
4. [텔레픽스] 텔레픽스, 150억대 프리IPO 투자 유치...위성 양산·상장 준비 가속
5. [한컴인스페이스] 한컴인스페이스, 초분광 위성 '세종 3호' 교신 성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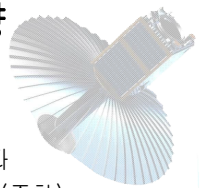
II 위성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

정 책

1. [중국] 중국, 머스크의 스타링크 대항해 20만개 위성 발사한다
2. [이란] 이란, 유혈사태 감추려 위성 인터넷 차단·사용자 처벌(종합)
3. [미국, 중국] 미·중 위성, 우주 교통 사고 보상...스타링크, 연간 30만회 '충돌 위험'
4. [중국] 정찰용 中인공위성, 日상공 10분마다 통과... "주일 미군 감시"

산 업

1. [스페이스X] 스페이스X, '우주 AI 데이터센터' 위해 위성 100만개 발사 추진
2. [스페이스X] AI 통신 시대...스페이스X "내년 차세대 모바일 위성 쏜다"



I. 위성 관련 국내·외 정책 및 제도 동향

정책-1 수차례 지연 아리랑6호, 3분기 이후로 또 연기...동행위성 문제

원문: '26. 1. 7. 뉴스1



한국 다목적실용위성 '아리랑 6호' 상상도(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)

■ 한국 다목적실용위성 '아리랑 6호'의 발사가 당초 올해 초에서 올해 3분기 이후로 다시 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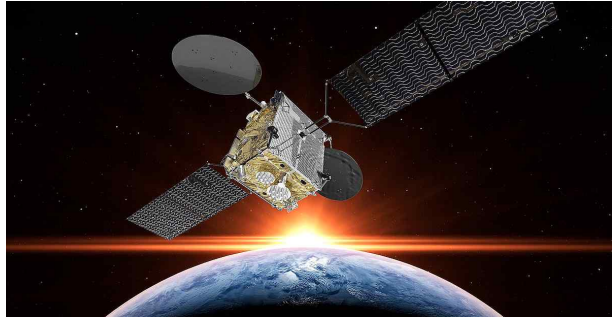
-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발사체 '베가-C'에 함께 실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위성 '플라티노-1'의 개발 지연이 직접적인 원인
 - 아리랑 6호는 2012년 12월 사업이 시작됐으며, 2022년에 위성체 총조립 및 우주환경시험 등 제작이 완료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발사 연기를 겪음
 - 당초 위성은 러시아 '안가라' 발사체로 2022년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 영상레이더(SAR) 개발·납품 지연,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일정이 밀림
- 국가 위성은 국내 발사체로 발사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
 - 우리나라의 초소형 군집위성 '네온셋'의 성능검증 위성(검증기) 역시 지난달 미국 로켓랩의 발사체 '일렉트론'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었으나, 현지 기술적 이슈로 발사가 불발
 - 해외 발사체에 우리 위성의 발사를 기댈 경우, 돌발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사 연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음

- 항우연이 개발을 주도한 한국 독자개발 저궤도 실용급 위성인 아리랑 6호
 - 야간·악천후 등 기상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전천후 영상레이더를 갖추
 - 위성이 제공하는 해상도는 서브미터급으로, 가로·세로 5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
 - 정부는 위성 영상을 통해 공공안전 확보, 재해 및 환경감시, 자원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방침

<https://www.news1.kr/it-science/general-it/6031077>

정책-2 내달 항공위성서비스 2호 위성 서비스 가동...항공 지연·결항↓

원문: '26. 1. 7. 연합뉴스



KASS 위성 [연합뉴스 자료사진]

■ KASS 2호 위성 운영 개시와 항공 안전·효율성 강화

- KASS 2호 위성 서비스 본격 적용
 - 국토교통부는 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1월 8일 AIP 등재,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할 예정
 - 2024년 11월 발사 이후 지상-위성 통합시험과 ICAO 성능 기준 검증을 완료
- 정밀 위치정보 정확도 및 안정성 향상
 - 기존 GPS 오차 15~33m → 1~1.6m 수준으로 대폭 감소
 - KASS 1·2호 위성 동시 운영으로 위성 장애 발생 시 대체 신호를 확보하고 위치정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
- 항공 운항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
 - 이·착륙 시 수평·수직 위치정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, 항공기 지연·결항 감소 및 비행경로를 단축
 - 연료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

① 기준국(7개소)	② 통합운영국(2개소)	③ 위성통신국(2개소)	④ 정지궤도위성(2기)
양주, 함평, 제주, 서귀포, 영도, 울릉, 양양	(주) 청주공항 내 (예비) 인천국제소 내	충남 금산, 경북 영주	(1호기) Measat-3D (2호기) KTsat무궁화6A
GPS 신호 수신 및 수집	수집된 GPS 신호를 보정해 KASS 신호 생성	정지궤도위성으로 KASS 신호 송신	KASS 신호 서비스 GPS+KASS ⇒ 정밀위치 확인

KASS 시스템 운용 [국토교통부 제공, 재판매 및 DB 금지]

■ KASS 활용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·산업 발전

- 공항·항공 서비스 확대와 실증 연구
 - 제주·무안·울산공항에 착륙 절차 마련 완료 후 KASS 활용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 연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 중
- 민간·비항공 분야로의 확산
 - KASS 정밀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KDAS 시스템 구축 완료
 - 위치기반서비스(LBS) 등 민간 서비스 개발에 우선 제공할 계획
 - 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주행차등 미래 모빌리티, 재난·안전 및 내비게이션 등으로 활용을 확대할 방침
- 위성항법 기술 경쟁력 강화
 - KASS는 세계 5번째 위성항법 정보시스템(SBAS) 운영 체계
 - 차세대 기술 개발 및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하고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 기반 마련

<https://www.yna.co.kr/view/APR202601070406000003?input=1195m>

정책-3 인텔리안 위성통신용 안테나 기술 등 韓 우주신기술 첫 지정

원문: '26. 1. 20. 뉴시스

번호	분야	기술명	회사명
1	위성	CMOS 및 CCD 융합 지구 관측 위성용 다중밴드 TDI 영상 센서	(주)센소허브
2		2차원 다채널 중적외선 검출기	아이쓰리시스템(주)
3	발사체	우주발사체 추진제탱크 제작을 위한 마찰교반 용접기술	엔디티엔지니어링(주)
4	우주관측 탐사 등	중궤도/저궤도 위성통신용 게이트웨이 안테나 설계 및 제작 기술	(주)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
5		저궤도 위성통신용 평면배열 안테나 설계 및 제작, 시험 기술	(주)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

우주항공청은 20일 제1차 우주신기술로 위성·발사체·우주관측탐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춘 5개의 혁신 기술을 선정했다. (사진=우주항공청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■ 우주신기술 지정제 도입과 1차 선정

○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제도

- ‘우주신기술지정제’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, 외국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기술 중 신규성과 진보성이 탁월하고,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제도
- 이번 1차 지정에는 위성 2건, 발사체 1건, 우주관측탐사 및 기타 19건 등 총 52건의 기술이 접수

○ 제1차 우주신기술 선정 결과

- 우주항공청은 20일 제1차 우주신기술로 위성·발사체·우주관측탐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춘 5개의 혁신 기술을 선정
- 우주청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기술의 혁신성, 시장 창출 가능성,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5건의 기술을 최종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증서를 발급
-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, 우주신기술 지정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
- 이번에 선정된 5개의 우주신기술은 위성 및 발사체 제작, 우주관측탐사 분야의 기술들로 고성능 영상 센서와 적외선 검출기, 발사체 추진제탱크 제작 공정,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망라

■ 우주신기술의 산업 파급 효과와 정부 지원 계획

○ 선정된 주요 우주신기술 및 특징

- 센소허브의 CMOS 및 CCD 융합 다중밴드 TDI 영상 센서는 고화질과 저전력을 동시에 구현해 고속 지구관측에 최적화된 기술
 - 아이쓰리시스템의 2차원 다채널 중적외선 검출기는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하는 중적외선 영상 획득으로 정밀 위성 영상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
 - 엔디티엔지니어링의 마찰교반 용접기술은 발사체 추진제탱크의 경량화와 구조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조 공정 기술로 발사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
 -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의 중궤도·저궤도 위성통신용 게이트웨이 안테나 기술과 저궤도 위성통신용 평면배열 안테나 기술은 실시간 위성 추적과 끊김이 없는 통신을 구현해 차세대 우주 인터넷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반 기술로 평가
 - 5개 신기술은 기술적 독창성뿐만 아니라 이미 제품화됐거나 조속히 제품화되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, 향후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
 - 특히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,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 부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#### ○ 제품화 지원과 공공조달 연계
- 우주청은 우주신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
 -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시범 구매 지원, 수익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
 - 우주청은 올해 총 2회(4월, 10월 예상)의 추가 우주 신기술 지정을 계획
 - 국내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우주기술들이 보다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

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60120_0003482852

정책-4 한·미 우주환경 협력 확대... ‘심우주 우주관측위성’ 운영

원문: '26. 1. 21. 디지털타임스

■ 우주항공청, 美 해양대기청과 우주환경 예·경보 운영 연계

- 우주항공청은 21일 제주 우주환경센터에서 미국 해양대기청(NOAA) 환경위성정보국(NESDIS) 아이틴 파커 국장 대행 등 대표단과 한·미 간 우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논의를 진행
 - 우주환경센터는 NOAA 우주환경예측센터(SWPC)를 모델로 출범한 이후 NOAA와 협력하며 우리나라 우주환경 예·경보체계 기반을 구축
 - 이날 고위급 논의에서는 우주환경 연구 성과를 실제 예·경보 운영에 연계하기 위한 연구-운영 협력(R2O)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우주환경 분야 양해각서에 반영

■ 협력체계 청 단위 격상으로 우주전파재난 대응 공조 강화

- 양측은 심우주 태양 관측 위성 자료 수신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NOAA 심우주 환경 관측 임무인 ‘SWFO’ 위성 수신국 구축 및 운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
 - SWFO 위성은 지구로부터 150만km 떨어진 지점에서 태양 입자와 태양풍을 관측하는 위성으로 지난해 9월 발사
 - 두 기관은 우주 환경 분야 협력체계를 청 단위로 격상해 한·미 간 우주환경 분야 협력과 우주전파재난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

<https://www.dt.co.kr/article/12042005?ref=naver>

정책-5 우주청, 한국형 인공위성 환경시험규격 개발 착수

원문: '26. 1. 28. 뉴시스



[여수=뉴시스] 황준선 기자 =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.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체 제작 전 과정을 주관한 누리호 4호기는 오로라·대기광 관측과 우주 자기장·플라스마 측정 등을 위한 위성 13기가 탑재됐다. 2025.11.27. hwang@newsis.com

■ 우주청, 항우연에서 환경시험규격 개발 착수 회의

- 우주항공청이 국산 누리호 발사체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‘한국형 인공위성 환경시험규격’ 개발에 착수
 - 인공위성 환경시험규격은 위성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진동, 충격 등의 발사 환경과 진공, 방사선, 극심한 온도 변화 등 우주환경에서 위성이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시험규격
 - 그동안 국내 위성체계 개발 기업들은 위성을 발사할 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(NASA) 및 유럽우주국(ESA) 환경시험규격을 준용
 - 만약 과소한 환경시험규격을 적용하면 실제 발사시 부품 파손이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, 위성의 작동 기능 장애와 다른 탑재체에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
 - 반대로 과도한 규격을 적용하면 위성의 구조설계가 불필요하게 강화돼 위성 무게와 크기가 증가하고,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고신뢰성 부품을 채택해야 해 개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짐

- 우주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발사체 발사 규격과 위성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환경시험규격을 마련할 계획
 - 이를 통해 국내시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험 수준을 제시하고, 위성체계 및 구성품 개발 기업 현장 적용성을 높임
 - 특히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시험규격을 최적화하고, 발사규격 요구조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사체 개발 기관과 긴밀한 소통
 - 이를 위해 위성·발사체 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 10명을 기술전문단으로 위촉하고 환경시험규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검토를 연말까지 진행

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60128_0003492877

정책-6 위성 레이더(InSAR) 기술 이용, 지반 침하 막는다.

원문: '26. 3. 3. 국제신문



진주시청 전경. 국제신문 DB

■ 진주시가 위성 레이더(InSAR) 기술을 활용해 지반 침하 등 재난 예방에 나선다

- 진주시는 3일 ‘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’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
 - 이번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, 위성 레이더(InSAR) 기술을 활용해 지반의 미세한 변위를 밀리미터(mm)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
 - 이를 통해 싱크홀(sinkhole) 등 지반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탐지하고, 재난 예방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
 - 보고회는 초소형 위성 기반 데이터를 행정에 직접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, 진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재난 대응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
- 현재 플랫폼 개발은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각화와 행정 활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 구성 등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
 - 아울러 기존 진주 지역의 싱크홀 발생 사례를 토대로 충무공동·상평동 등 주요 주거 및 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분석을 추진해 행정 적용 가능성을 실증할 계획
 - 향후 지반 침하 시계열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, 실증 지역에 대한 현장 검증을 거쳐 관계 부서 시스템과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

-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와 수행기업 (주메이사, 전문위원 등이 함께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행정 적용 방안을 논의
 - 우주산업을 행정 현장에 접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
 -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
 -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, 재난·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

<https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300&key=20260303.99099000712>

정책-7 국방부, 국정원·우주항공청 등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사업 논의

원문: '26. 3. 10. 뉴시스



[서울=뉴시스] 김진아 기자 = 군 정찰위성 5호기가 2일(현지 시간)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(Cape Canaveral)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. (사진=스페이스X 제공) 2025.11.02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10일 오전 제7회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를 개최

- ‘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’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위원회
 - 국가안보 관련 우주정책 및 우주개발사업을 심의·조정하는 기구
 - 이번 위원회는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점검하고, 안보분야 우주개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
 -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주관한 이번 위원회에는 국방부, 국정원, 우주항공청, 외교부,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·기관 정부위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소속 민간위원을 포함해 약 20명의 위원이 참석
- 위원회에서는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사업과 군위성통신체계-3 개발 사업 등 안보분야 주요 우주개발사업계획을 심의하고, 범정부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
-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부처·기관은 국가우주안보 분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, 안보분야 우주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

- 초소형위성체계와 군위성통신체계-3 사업은 우리 군의 감시·정찰 능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
 - 해경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함께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
 - 우주공간이 안보의 핵심 영역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급부상
 -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국가우주안보의 나침반 역할은 물론 민간의 기술 및 정책제언을 수렴하는 핵심창구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

<https://www.yna.co.kr/view/APF20251129005300061?input=1195m>

정책-8 KAI, 우주 의학 전문기업과 위성 인공지능 실증 맞손

원문: '26. 3. 23. 연합뉴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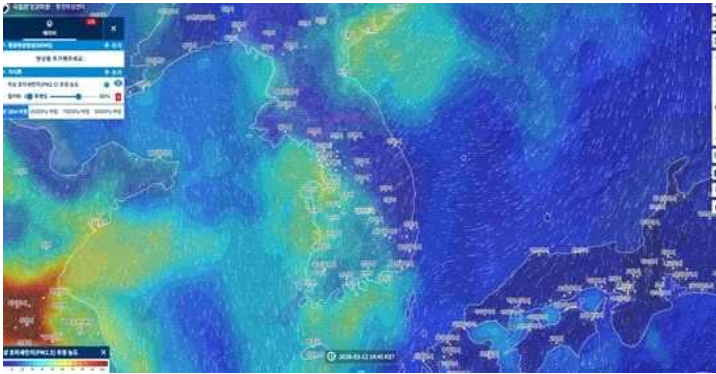
KAI 스페이스링크 업무협약 체결 [KAI 제공, 재판매 및 DB 금지]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지난 20일 우주 의학 전문기업 스페이스링크와 '큐브위성 인공지능(AI)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'을 체결
 -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올해 하반기에 AI 모듈을 탑재한 큐브위성을 실제 우주공간으로 보내 실증을 진행
 - 실증 프로젝트에서는 KAI가 자체 개발한 AI 모듈을 스페이스링크와 연세대가 공동 개발하는 큐브위성 플랫폼에 탑재
 - 이후 AI가 우주 궤도에서 자율적으로 위성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 검증
 - 탑재한 AI 모듈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성 상태를 분석하고 스스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'AI 온보드 프로세싱'을 집중적으로 검증
 - 이 기술로 향후 위성이 지상의 개입 없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'완전 자율 운영 위성'을 실현한다는 계획
 - 한편 KAI는 위성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장 시나리오를 학습시킨 AI 모듈을 자체 개발
 - 이번 협업을 통해 검증된 AI 모듈은 향후 제작하는 다양한 위성 시스템의 핵심 표준 사양으로 자리 잡게 될 것

<https://www.yna.co.kr/view/APF20260316072900017?input=1195m>

정책-9 위성으로 관측 어려운 초미세먼지 농도...AI로 빠르게 알린다

원문: '26. 3. 31. 뉴시스



[세종=뉴시스] 환경위성 기반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 제공 서비스. (사진=국립환경과학원 제공) 2026.03.30.
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■ 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환경위성 관측이 어려웠던 지상 초미세먼지(PM 2.5) 농도를 인공지능(AI)을 활용해 정보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

-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AI를 활용해 환경위성(GEMS) 기반의 초미세먼지 추정농도를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
- GEMS는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
 - 환경위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넓은 범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구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관측이 어렵다는 한계
 -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AI 융합 기술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기상자료, 지상 관측자료, 대기질 예측자료 등을 함께 분석해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 공백 없이 추정
 -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방식과 자료 처리 과정을 개선해 위성 관측 이후 약 1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대비 2배 빠른 수준

- 개선된 미세먼지 정보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과 에어코리아 어플리케이션(앱)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
- 환경위성 기반 초미세먼지 정보는 대기질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
- 올해는 오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

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60330_0003570131

산업-1 현대글로비스, '스페이스X 통신위성' 스타링크로 선박 연결

원문: '26. 1. 29. 조선비즈



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운반선과 벌크선 등 자체 보유 선박에 저궤도 통신위성 서비스 '스타링크'를 도입해 해상 통신환경 고도화에 나섰다. /현대글로비스 제공

■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운반선과 벌크선 등 자체 보유 선박에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'스타링크'(Starlink) 도입을 시작

○ 선박 통신 환경 고도화

- 현대글로비스가 자체 보유한 자동차 운반선과 벌크선 등 총 45척에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'스타링크'(Starlink) 도입
- 스타링크는 미국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로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
- 올해 국내 입항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해 해상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할 계획

○ 해상 안전 강화와 스마트 해운 기반 구축

-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, 대용량 데이터 통신 인프라 구축과 선원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
- 선박 고장이나 선원 상병, 기상 악화 등 해상 위험 상황 발생 시에도 육상과의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 범위와 속도를 확보
-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더 고도화할 방침으로 선박 자율 운항 기술과 AI 기반 예측 장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 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

<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company/2026/01/19/LT4KZKQFHTBA72216R0BYK64>

산업-2 LIG넥스원, 민간주관 위성개발사업 착수

원문: '26. 2. 6. 조선비즈



LIG넥스원이 미국 L3해리스와 미국 포트웨인 현지에서 기상탐지체 개발 착수회의를 진행한 모습(LIG넥스원 제공)

■ LIG넥스원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·우주기상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(GK5) 사업에 착수

- GK5 사업은 기존 정부출연연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주관 연구·개발 기관으로 참여해 위성체 설계부터 제작, 시험, 통합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첫 사례

- 이번 회의에는 양사 주요 임원과 기술진이 참석해 개발 현황과 개발 일정 등을 공유
- 사업 관리를 위한 위킹그룹 구성과 기술 인터페이스, 품질 관리 체계, 시험검증 절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
- 아울러 LIG넥스원과 L3해리스는 미래 사업에 대한 양사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

- GK5 기상탐지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천리안위성 2A호(GK2A)에 비해 예보 정확성과 시의성이 대폭 향상된 탐지체

- 한반도와 동아시아 관측에 특화되고 위험기상 현상 추적관측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
- L3해리스는 기상탐지체 핵심 설계 및 개발을 담당하고, LIG넥스원은 국내 품질관리, 성능시험, 수락검증, 위성체와의 체계통합을 수행
- LIG넥스원은 기상탐지체 통합 및 검증 경험을 통해 광학·전자·열제어·데이터 처리 분야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, 향후 국산 탐지체 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

<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company/2026/02/06/PWL2PKSDNJSCHENBTHMLKPAE/>

산업-3 대한항공 위성 탑재용 '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' 개발 성공

원문: '26. 2. 12. 뉴시스



지난 1월 전북 전주 캠텍종합기술원에서 5미터(m)급 안테나 전개 시스템 시험을 진행한 뒤 대한항공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한 모습(대한항공 제공). 2026.02.12.

■ 대한항공,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위성 탑재용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시험에 성공

- 대한항공이 독자 개발한 안테나 전개 기술이 검증받은 것으로, 향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차세대 위성 개발 핵심 기술로 확대해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
- 양 기관은 지난 1월 전북 전주 소재 캠텍종합기술원에서 5m 크기의 위성용 안테나 전개 시스템 시험을 진행
 - 시험에는 국기원, 캠텍종합기술원, 스텝랩, 한국항공대학교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
- 위성용 안테나 전개 장치는 메커니즘에 따라 완벽하게 작동
 - 복잡한 전개 구조물의 기계적 간섭을 해결하고, 반복적인 전개 과정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
 - 이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테나의 형상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
 - 해당 기술은 발사 시 부피를 최소화하고자 발사체 내부에 대형 안테나가 수납 상태로 접혀 있다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거대한 크기로 펼쳐내는 것이 관건
 - 특히 우주 환경에서 오차 없이 정밀하게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위성의 성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

- 대한항공이 독자적으로 설계·제작한 '안테나 전개 메커니즘'의 유효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
 - 대한항공은 이번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목표인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
- 대한항공은 향후 미래 우주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기술 확보에 매진할 계획
 - 지상 10cm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, 6G 위성통신 기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차세대 위성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

<https://www.news1.kr/industry/general-industry/6070885>

산업-4 텔레픽스, 150억대 프리IPO 투자 유치...위성 양산·상장 준비 가속

원문: '26. 3. 16. 중소기업신문

TELEPIX

텔레픽스 [텔레픽스 제공, 재판매 및 DB 금지]

■ 우주 AI 솔루션 스타트업 텔레픽스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50억원대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

- 해외 수주 확대에 대응해 위성 양산 체계를 강화하고, 하반기 기업공개(IPO)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
 - 텔레픽스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는 벤처캐피탈 인터베스트가 단독 참여
 -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생산 설비 확충과 연구개발(R&D)에 투입할 계획
- 텔레픽스는 지난 2월 유럽 시장에서 수천만달러 규모의 위성 수출 계약을 체결
 - 이를 계기로 위성 양산 대응과 생산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
 - 회사는 인공지능(AI) 온보드 프로세싱과 위성영상 분석 솔루션 등 위성 데이터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
- 텔레픽스는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절차도 본격 추진할 방침
 - 회사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AI·빅데이터 분야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힘
 - 이번 투자까지 포함한 텔레픽스의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기존 투자자로는 산업은행, SBVA, 제이엔프라이빗에쿼티,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등이 참여

- 2019년 설립된 텔레픽스는 위성 제작과 운용, 위성 데이터 처리·분석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음
 - 주요 개발 성과로는 GPU 기반 인공위성용 실시간 AI 프로세서 ‘테트라플렉스’, AI 큐브위성 ‘블루본’, 심우주 항법용 차세대 AI 별추적기 ‘디내브’ 등이 있으며 이들 기술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운용해왔다고 설명
- 텔레픽스는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글로벌 위성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2024년 약 120억달러에서 2030년 약 29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농업, 에너지,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용 위성 데이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성장 요인으로 제시
 - 텔레픽스는 최근 위성 데이터 특화 에이전틱 AI 솔루션도 자체 개발했으며, 지난해 방위사업청의 ‘방산혁신기업 100’ AI 분야에 선정된 바 있음

산업-5 한컴인스페이스, 초분광 위성 ‘세종 3호’ 교신 성공

원문: '26. 3. 31. 연합뉴스



세종3호 [한컴인스페이스 제공, 재판매 및 DB 금지]

■ 한컴인스페이스가 민간 초분광 위성 ‘세종 3호’의 지상국 교신에 성공

- 세종 3호는 지난 30일 오후 8시 2분(현지시간 30일 오전 4시 2분)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‘팰컨9(Falcon 9)’ 로켓에 실려 발사
 - 이후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하며 위성 본체와 시스템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
 - 세종 3호는 가로 200mm, 세로 100mm, 높이 340mm 크기에 무게 약 10.8kg인 초소형 위성으로, 고도 500~600km 저궤도에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
- 핵심 탑재체인 초분광 센서는 442개의 파장 밴드를 기반으로 물질 고유의 반사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기존 영상 관측을 넘어 지표 물질의 특성까지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관측 기술
 - 초분광 데이터는 작물의 생육 상태와 병해를 조기 탐지하는 정밀 농업을 비롯해 산림 관리,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
 - 위장이나 은폐된 대상 식별과 같은 고도화된 감시·정찰 영역으로도 확장이 가능
- 한컴인스페이스는 기존에 운용 중인 세종 시리즈 위성과 세종 3호를 연계한 군집 운용 체계를 통해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, 데이터 융합 기반의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
 - 자체 개발한 다중정보 융합 AI 분석 플랫폼 인스테이션을 기반으로 농업, 환경, 국방 등 산업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

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F202603310688000177?input=1195m>

II. 위성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

정책-1 중국 중국, 머스크의 스타링크 대항해 20만개 위성 발사한다

원문: '26. 1. 12. 서울신문



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. 홈페이지 캡처

■ 제한된 지구 궤도 선점 경쟁

- 중국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항해 올해 20만 개 인터넷 위성 발사를 신청하면서 미중 간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둘러싼 우주 경쟁이 거세
 -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2일 중국 기업들이 20만 개 이상의 인터넷 위성 발사 계획을 지난달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에 제출
- 일론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9일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(FCC)로부터 올해 7500개의 위성 추가 발사를 승인
 - 스페이스엑스는 약 3만 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위성군 구축 계획을 제안했으나 FCC는 7500개의 위성만 승인
 - 현재 약 1만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 궤도에서 운행 중이며 각 위성은 5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 뒤 소각되도록 설계



국제-중국-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(天宮) 1호 [CNSA 제공]

- 지난달 중국은 유엔을 통해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이 우주에서 충돌 위험과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해 사용되는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고 항의
 - 중국 기업이 대거 위성 발사 계획을 제출한 것은 유엔에서 미국과 위성 문제를 놓고 충돌한 시점과 맞물림
 - 중국 측은 지난 2021년 자국 우주정거장 텐궁과 스타링크 위성이 근접해 우주비행사 생명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으며, 스페이스엑스 역시 자사 위성 과 중국 위성이 충돌할 뻔했다고 항의
 - 스페이스엑스는 4만 개 이상의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중국은 '귀왕(국가망)'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위성 발사를 계획
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international/2026/01/12/20260112500181?wlog_tag=naver

정책-2 이란 이란, 유혈사태 감추려 위성 인터넷 차단·사용자 처벌(종합)

원문: '26. 1. 13. 연합뉴스



이란 시위 [WANA 제공, 로이터=연합뉴스]

- 격화하는 시위에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한 이란 당국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접속까지 막고자 군사장비를 동원하고 사용자 단속에 나선
- 전국 인터넷 봉쇄와 스타링크 차단 시도
 - 이란 당국이 지난 8일 저녁부터 국내 인터넷·통신망을 완전히 끊으면서 스타링크 이용도 급격히 어려워짐
 - 우크라이나 전쟁, 가자지구 전쟁 등 분쟁지에서 최후의 소통 창구로 기능한 스타링크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
- 군사 장비 동원한 스타링크 무력화
 - 이란 당국은 군사 장비까지 동원해 전파를 교란하고 각 주택 지붕 위를 드론으로 순찰하며 스타링크 안테나를 수색
 - 이란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되면서 스타링크 위성을 겨냥한 군사급 전파방해 채밍 신호가 감지
 - 스타링크의 자료 전송 트래픽이 30%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감소율이 80%에 달함
 - 관련 기술이 매우 정교해 보이며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 정부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음



이란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. 재판매 및 DB 금지]

■ 시위 은폐 목적과 내부 통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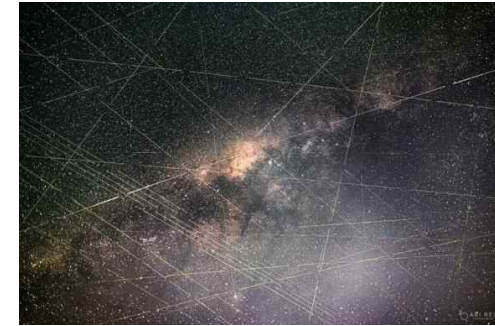
- 지난 10일부터 이란 당국은 수도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 스타링크 안테나를 수색·압수하기 시작
 - 지난해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란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소지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스파이 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음
- 이란이 대대적으로 스타링크를 차단하는 이유
 - 반정부 시위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
 - 이란 시민들이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은 시위의 규모와 이란 당국의 대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 중 하나
 - 인터넷 차단 이후 이란 내부에서 외신에 전해지는 사진과 영상 등 시위 정보는 대부분 스타링크를 이용해 전송된 것으로 추정
 - 이란 내 스타링크 가입자는 4만~5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며, 작년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던 '12일 전쟁' 중에도 이란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당국의 검열이 없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짐

<https://www.yna.co.kr/view/APR20260113001251108?input=1195m>

정책-3

미·중 미·중 위성 우주 교통 사고 비상·스타링크 연간 30만회 '충돌 위험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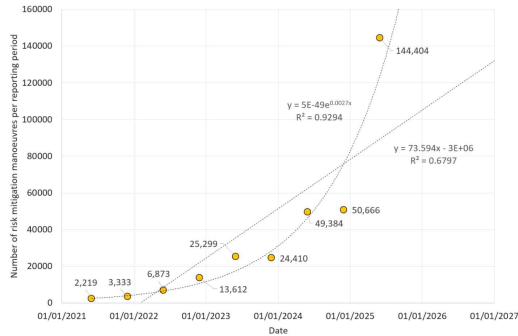
원문: '26. 1. 27. 한겨레



스타링크 위성은 2025년에 약 30만번의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한 것으로 추산된다. 사진의 흰색 줄은 밤하늘에 나타난 저궤도 위성의 궤적. Satellite Streak Watcher/Anecdata.org

■ 스타링크 확장과 충돌 회피 기동 급증

- 연간 30만 회에 달한 충돌 회피 기동
 - 스페이스엑스에 따르면 스타링크 위성은 2025년에 약 30만 차례의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
 - 이는 하루 평균 820회 수준으로, 2024년 약 10만 회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
 - 위성 1기당 연간 평균 30~38회의 궤도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
- 저궤도 활성 위성의 65% 차지
 - 현재 약 9400기의 스타링크 위성이 저궤도에서 운용 중이며, 전체 활성 저궤도 위성의 약 65%를 차지
 - 이로 인해 우주 쓰레기와의 근접 조우뿐 아니라 다른 근접위성과의 충돌 위험도 크게 늘어남
- 중국 위성과의 반복적 근접 조우
 - 스타링크 위성은 중국 홍후2 위성과의 근접 조우로 1100회가 넘는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
 - 스페이스엑스는 충돌 위험을 유발한 상위 20개 물체 중 7개가 중국 위성이라고 밝히, 국가 간 위성 경쟁이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



스타링크 위성의 연도별 충돌 회피 기동 횟수.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휴 루이스 교수

■ 글로벌 군집위성 경쟁과 궤도 환경 지속 가능성

○ 미·중 중심의 대규모 위성 배치 경쟁

- 중국은 수만 기 규모의 군집위성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, 미국에서도 스페이스엑스와 아마존 등이 대규모 위성 발사 계획을 내놓고 있음
- 이에 따라 저궤도 공간은 빠르게 포화 상태로 향하고 있음

○ 전문가들의 지속 가능성 경고

- 우주 상황 인식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위성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, 2027년에는 충돌 회피 기동이 연간 100만 회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
- 이는 궤도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

○ 스페이스엑스의 위험 완화 대응

- 스페이스엑스는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절반에 해당하는 스타링크 위성의 궤도를 550km에서 480km로 낮출 계획
-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주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
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science/technology/1241811.html>

정책-4 중국 정찰용 中인공위성, 日상공 10분마다 통과… “주일 미군 감시”

원문: '26. 3. 15. 디지털타임스



중국이 2023년 10월 5일 아오간-39 위성을 실은 창정-2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 [웨이보 사진 캡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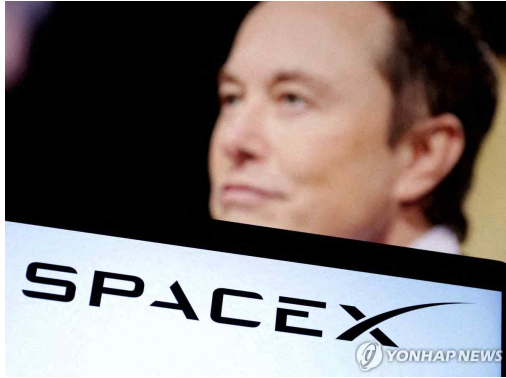
■ 중국군의 정찰용으로 의심받는 중국의 인공위성들이 일본 상공을 약 10분에 한 번씩 통과하며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분석

- 요미우리신문은 15일, 인공위성 추적 사이트 ‘스페이스 트랙’의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군의 정찰용으로 의심받는 야오간(遙感) 계열 위성 약 160기 가운데 최근 3년간 고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약 80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전함
- 특히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 주변 상공에서도 2시간에 약 10기의 중국 위성이 지나는 등 높은 빈도로 궤도를 돌았음
- 작년 12월 하순에는 미 해군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주변 상공을 야오간 위성이 하루 평균 약 60회 통과
- 미 해군의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 주변 상공도 하루 평균 48회 통과
- 부대 배치 상황이 중국 측에 거의 상시로 파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
- 야오간 위성은 중국이 2006년부터 쏘아 올리고 있는 인공위성으로, 대부분 저궤도를 돌고 있음
-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정보 수집과 함께, 중국의 반접근·지역거부(A2AD) 전략 강화를 위한 우주 감시 능력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

<https://www.dt.co.kr/article/12051527?ref=naver>

산업-1 스페이스X, '우주 AI 데이터센터' 위해 위성 100만개 발사 추진

원문: '26. 2. 1. 연합뉴스



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로고 [로이터=연합뉴스 자료사진]

■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에 대규모 인공지능(AI)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

- 스페이스X는 밤 미 연방통신위원회(FCC)에 지구 궤도 위에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최대 100만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
- 스페이스X는 “AI로 인한 데이터 수요 폭증을 수용하기 위해” 태양광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
 - 우주 AI 데이터센터는 태양광으로 구동되고, 지상의 데이터센터들처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수랭식 시스템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사 냉각 방식으로 열을 방출
 - 지상 데이터센터보다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
-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인 스타십을 통해 발사되는 이 위성들은 고도 500~2000km에 위치하며, 레이저 링크로 서로 통신할 예정

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P20260201016700009?input=1195m>

산업-2 스페이스X AI 통신 시대...스페이스X “내년 차세대 모바일 위성 쏜다”

원문: '26. 3. 3. 한경



그윈 쏿웰 스페이스X 사장이 MWC 2026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위성통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로이터 연합뉴스

■ 6G 핵심 화두 ‘지상망 - 위성망 결합 네트워크’

- MWC 2026에서 부각된 6G 경쟁
 - 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음
 - 6G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망이 아닌 AI 기반 네트워크로, 로봇·자율주행·드론 등 미래 서비스가 끊임 없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



이종식 KT 미래연구소장이 KT의 6G 미래 청사진을 소개하고 있다. KT 제공

○ 지상망과 위성망 결합 필요성 확대

- 미래 통신 환경에서는 고도와 위치에 관계없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요구
- 이를 위해 지상 이동통신망과 함께 위성 기반 비지상 네트워크(NTN)를 결합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으며, 지상·해상·공중을 아우르는 통신 인프라 구축이 6G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

○ 스타링크 중심 위성통신 경쟁

- SpaceX의 Starlink는 현재 위성통신 분야에서 가장 앞선 사례로 평가
- 스페이스X는 차세대 모바일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, 대형 우주선 Starship을 활용해 한 번에 5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



중국 네트워크 장비사 유클라우드링크그룹이 MWC 2026에서 '펫 폰' 디바이스를 선보였다. 로이터 연합뉴스

■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6G 주도권 경쟁

○ 미국·중국 중심의 기술 경쟁

- 미국 기업들은 2029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연합체를 구성해 기술 표준 선점에 나섰다
- 중국의 Huawei 역시 정부 지원 아래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와 실증을 진행하며 지상망과 위성망을 결합한 자체 네트워크 구조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

○ 일본·유럽 기업들의 재도전

- 일본의 NTT Docomo는 5G 경쟁에서 뒤처진 경험을 바탕으로 6G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음
- Nokia는 네트워크 장비와 5G 기지국 칩셋 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6G 시장 선점에 다시 도전하고 있음

○ 한국 통신사의 6G 전략

- KT는 MWC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6G 네트워크 청사진을 발표
- KT는 6G 시대의 초연결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상·해상·공중을 모두 커버하는 통신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힘
- KT SAT이라는 위성 인프라 역량이 KT의 장점이며 이는 지상 이동통신망과 위성 인프라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이미 갖췄다는 의미
- KT는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5G SA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보다 더 오랜 기간 5G 아키텍처를 구축·운영해 온 경험이 6G 구조 설계 및 상용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